

Japan Weekly Digest

2012. 9. 29 ~ 2012. 10. 05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경제산업성 국제 표준화에 총력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기업들 일·중 관계 악화에 단기적 대응
- 일본상사들 재생에너지 분야에 분산투자
- 저패 디스플레이, 스마트폰용 유기EL패널 양산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추격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1 주간경제초점 : 경제산업성 국제 표준화에 총력

□ 대형축전지, 일본주도의 국제규격 책정

- 차세대 전력시스템에 필수요소인 대형 축전지의 국제규격이 일본 주도로 책정될 전망
 - 경제산업성과 도시바, 히타치제작소를 중심으로 국제기관에 전문위원회를 설치,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성능표준화를 추진
- 전자부품, 가전 등의 국제규격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표준회의(IEC)에 「전기에너지-저장전문위원회」를 설치
 - 일본의 제안은 이미 관련 국가들의 찬성을 얻고 있어,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5일까지 개최되는 IEC총회에서 정식으로 발족하여 일본이 전문위원회의 간사로서 간부 인사나 기준의 틀을 결정하게 됨
- 전문위에서 각국과의 조정을 개시, 이르면 내년에라도 구체적인 규격 책정에 들어가 2~3년 내로 표준을 결정
 - 경제산업성은 관민 협동으로 일본기업들의 전력공급 기술을 활용, 세계시장에 시스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□ 일본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

- 대형 축전지는 스마트그리드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,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이 국제규격에서 주도권을 장악되면, 일본메이커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
 - 규격책정 대상은 대형 축전지와 이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전체. 기후에 따라 출력이 변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전력공급을 안정시키는 등의 기술에 활용
 - 현재는 연축전지나 리튬이온전지가 주력이나, 앞으로는 일본 독자적인 기술로서 용량이 크고 비용도 저렴한 일본가이시(주)의 NAS(나트륨유황)전지나 스미토모전기공업(주)의 레독스프로전지가 보급될 전망
- 축전지의 세계시장규모는 2011년 약 5조엔에서 2020년에는 4배인 20조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일본은 세계시장점유율 50%를 목표
 - 축전지분야는 독일이나 중국이 국제규격을 제안할 움직임이 있어,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일본 기업들이 수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규격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

□ 국제규격을 조기제안하기 위한 「탑 스탠더드 제도」 도입

- 경제산업성은 6월에 국제규격의 조기제안을 촉진하는 「탑 스탠더드제도」를 도입, 이번 축전지 관련 규격제안이 전기 분야의 제안 1호
 - 건전지의 크기, 전압의 키 배열 등 다양한 제품의 국제규격은 각국의 제안, 요청을 받아 국제기관에서 결정. 최근 규격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,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 주도로 규격이 결정되면, 세계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
 - 이를 고려하여 경제산업성은 업계의 의견조정을 거치지 않고, 조기에 표준화를 국제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「탑 스탠더드제도」를 도입
 - 지금까지 국제표준 제안에 필요한 일본메이커들 간 합의를 얻는 데 2~3년이 소요되면서 타국에 선두를 뺏겨 일본이 불리하게 되는 바람에 국제규격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
- 경제산업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는 국내조정을 거치지 않고,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과 빠르게 국제표준을 제안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국제규격을 제안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4개월도 채 안됨
 - 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IEC의 전문위원회는 약 90개가 있으나, 일본은 1차 전지나 오디오·비디오 등 7개 밖에 간사를 두고 있지 않음
 - IC카드에서는 모토롤라 등 미국·유럽 방식이 먼저 표준화되면서 소니의 웨이카가 보급될 수 없었던 실패사례가 있었음

□ 소재의 내구성 분야에서도 관·민 연대로 국제규격 제안

- 경제산업성은 벤처기업과 연대하여, 소재분야의 내구성 기준에 국제표준화를 제안하기로 함
 - 자동차나 전자부품에 활용되는 수지와 금속 접합기술과 관련하여, 당김이나 굽힘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힘에 버틸 수 있는가에 관한 세계 공통의 계측기준을 결정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술의 우수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판로개척을 목표로 한다는 것임
- 수지메이커인 타이세이플라스(주)가 경제산업성과 소재 관련 대기업인 토우소, 토레이, 미쓰이화학과 함께 국제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제안
 - 제안된 표준은 수지와 금속을 접합할 때 강도나 내구성의 평가방법으로 대성플러스는 금속표면을 나노 수준으로 가공하여 미세한 구멍을 뚫고, 거기에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것으로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높은 강도의 접합기술을 개발
 - 그러나 접합부의 강도나 내구성을 계측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, 해외 판매 확대에 필수적인 각국 공통의 평가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임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일본기업들 일·중 관계 악화에 단기적 대응

- 일·중관계의 악화에 일본기업들이 감산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은 생산 거점 및 소비시장으로서 중요한 만큼,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중 전략의 재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음
 -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은 감산을 결정. 중국에서 반일 데모에 편승한 형태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소동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음
 - 최근 들어 중국자동차시장의 경기감속으로 재고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된 반일감정이 감산의 촉매역할을 함
- 일본의 인터리스크종합연구소에 의하면, 중국 진출 일본기업들로부터 향후 대책에 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
 -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, 공장만이 아니고 물류, 소매, 음식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22,307개사(2011년 중국무역외경통계년감)에 이르고 있는데, 중국진출 리스크나 일·중관계 악화에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도 적지 않음
 - 만일 사태에 대비한 행동매뉴얼 작성이나 경제적 제제로 부품조달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, 대체루트 확보 등 가능한 한 준비가 다음 단계로서 필요하다는 것
 - 또한 임금상승 압력 증대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사와 현지의 연대강화, 지방정부, 공안, 인근기업 등 현지네트워크의 확충과 원활한 관계 구축, 중국인 스텝 기용에 의한 현지화를 통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
- 영국 버클레이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일·중 대립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공산은 적다고 하면서도, 최근 양국 간 일련의 사건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집중 리스크를 일본기업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지적
 - 최근 ASEAN지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앞으로 수년간 가일층 그 경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

□ 일본상사들 재생에너지 분야에 분산투자

- 일본상사들이 발전사업의 에너지자원이나 지역을 분산,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음
 - 이제까지는 화력이 중심이었으나, 앞으로는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변동이 큰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

- 각사들은 독립된 발전사업자(IPP)로서 설비의 공급뿐만 아니라,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 장기적으로 전력판매 수익을 늘려 나가고 있음
 -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도입 상대국의 정책변경으로 사업 환경이 급변할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임
 - 발전량이 기후에 좌우되기 쉽고, 화력 등에 비하여 발전효율이 낮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비싼 것도 과제임
- 이에 각사들은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,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음.
 - 스미토모상사는 미국에서 세계 최대 풍력발전사업에도 참여,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임
 - 미쯔비시상사는 캐나다와 태국에서 발전 용량 73,000K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
 - 마루베니는 영국과 캐나다, 호주 등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□ 저패디스플레이, 스마트폰용 유기EL패널 양산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추격

- 중소형 액정패널 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저패디스플레이가 2013년 유기EL(엘렉트로·루미네센스)패널의 생산라인을 시게하라(치바현 시게하라시 소재) 공장에 200억~300억엔을 투자하여 신설
 - 2013년도 시제품을 출시, 스마트폰메이커와 성능 등을 검증하여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
- 미국 애플사에 대한 공급도 겨냥, 스마트폰용 유기EL패널을 생산, 선발주자인 한국 삼성디스플레이를 추격
 - 유기EL은 호타루와 같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재료를 화소에 사용. 패널의 후방에서 빛을 내는 액정보다 패널을 얇게 하여 소비전력을 억제할 수 있음
-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, 소니의 중소형 패널사업을 통합한 저패디스플레이는 1인치당 화소 수 326픽셀의 매우 세밀한 유기EL패널을 개발
 - 1화소에 원색(적색, 녹색, 청색)을 스트라이프모양으로 배열. 저패디스플레이 관계자에 의하면, 2색의 화소를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하는 삼성보다 색의 재현성이 높다는 것
- 미국 NPD디스플레이리서치에 의하면 중소형 유기EL패널시장은 2016년에 2011년 대비 약 5배인 171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으로는 삼성이 약 90%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
- 저패디스플레이는 애플에 유기EL패널을 공급할 수 있으면 조기에 수익사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JX닛코닛세키 에너지	2012.9.29	윤활유 원료	한국/SK루브리컨츠	공동생산/자동차용 윤활유 제조·판매
일본페인트	2012.10.1	건축용 도료	방글라데쉬	직접투자/공장 신설, 투자규모 약 6억엔
일본인터	2012.10.1	반도체소자	미국/트랜스폼	자본·업무제휴/차세대반도체 파워기술 활용
스미토모상사	2012.10.3	태양광발전	미국/넥스트 웨러에너지	자본제휴/총 사업비 약 1,800억엔 중 50%출자
오우지홀딩스	2012.10.3	판지	태국/복스 아시아그룹 인터내셔널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격 10억엔 미만
호쿠에츠키슈제지	2012.10.4	연축전지용 소재	프랑스/피난셀 베르나류뒤마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격 약 20억엔
신일철주금	2012.10.5	강관	중국/WSP홀딩스	직접투자/공장매수, 매수가격 약 34억엔
다케다약품	2012.10.5	약관관련 기술	미국/리고사이 트파마슈티컬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격 약 50억엔
국제협력은행 (JBIC)	2012.10.5	금융	터키/이슈뱅크	협조융자/인프라 수주를 위한 약 160억엔 융자한도 설정
J트러스트	2012.10.5	금융	한국/지방은행	직접투자/지방은행의 미래저축은행 매수, 「친애저축은행」으로 영업
미쯔비시UFJ 리스	2012.10.5	항공기 리스	미국/잭슨스퀘어에비에이션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격 약 1,000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표준과 지적재산 관리전략과 정책』 경제산업연구소, 9월29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pdp/12p017.pdf>

(2) 『중국이 추진하는 경제·사회의 구조개혁: 일본기업의 사업기회는 어디에 있는가?』
노무라종합연구소, 10월2일
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opinion/it_solution/2012/pdf/ITSF121002.pdf

(3) 『중국에 의한 대일 경제제제를 억지하기 위해서는』 세계경제연구협회, 10월2일

*출처:<http://www.sekaikeizai.or.jp/active/article/1001tashiro.html>

(4) 『제품혁신에 있어서 과급효과와 전략적 관계 : 일본의 이노베이션 정책에 대한 시사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4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2j034.pdf>

(5) 『일본경제는 아시아의 성장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가』 미쯔비시동경UFJ은행, 10월5일

*출처: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revi2012/review_0120120925.pdf

(6) 『동아시아 지역포괄적 경제연대(RCEP)를 어떻게 보는가』 JETRO, 10월5일

*출처: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1086/asean_rcep.pdf